光日春秋

안 도 현

문학은 고통의 축제다

작가들의 글쓰기를 흔히 출산의 고통에 비유한다. 예술 작품의 탄생이 그만큼 엄혹한 진통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까닭이다. 또한 작가들은 생의 환희나 행복보다는 고통과 결핍에 관심을 갖는다. 이 세상이 아무런 아픔 없는 태평성대라면 문학은 존재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삶이라는 게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듯 문학작품과 작가는 고통이 낳은 자식들이다. 다음 달 8일부터 14일까지 전주에서 열리는 아시아·아프리카 문학페스티벌(AALF)에 참가하는 외국작가들의 면면을 들여다봤다. 이들의 생의 이력은 하나하나 기구하고, 아프고, 눈물겹다. 그야말로 고통의 축제를 보는 듯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오는 루이스 응코시라는 소설가가 있다. 그는 인종차별 정책이 극심하던 60년대에 흑인소년과 백인소녀 간의 성관계를 묘사한 작품을 썼다는 이유로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에 의해 편도 기차표만 받고 강제추방을 당한다. 그렇게 고국을 떠난 후 30여년을 잠비아, 보츠와나, 말라위 등지의 인근 아프리카 지역은 물론 미국과 유럽 등지로 유랑한 작가다. 그는 1994년 최초의 흑인 정권인 만델라 정권이 선 이후에야 조국을 찾을 수 있었다.

1994년 벌어진 르완다 학살은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낸 사건이다. 3개월 간 거의 일백만 명의 목숨이 스러졌다. 이 사건의 생생한 목격자이자 피해자인 여성작가 욜란드 무카가사나가 이번 행사에 참여한다. 그녀는 학살 당시 남편과 두 아이를 잃은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이다.

아프리카의 생소한 나라 기니 비사우에서 오는 작가 로우렐은 돌고 돌아 한국에 온다. 그는 자국 내에 국제공항이 없어 인접국인 세네갈까지 버스 편으로 이동을 하고 세네갈에서 다시 유럽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오는 대장정에 돌입한다.

아시아 작가들도 예외가 아니다. 베트남의 여성 소설가 레 밍 쿠에는 열다섯 살의 어린 나이에 유소년 자원군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이력이 있다. 그녀는 5년의 군 복무 기간을 마친 뒤 1969년에 하노이에 돌아왔지만, 전장과 떨어진 도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정글로 돌아가 종전될 때까지 정글에서 군부대와 함께 작전을 수행한 전사다.

소련 연합군이 아프가니스탄을 침범하던 당시 유명 시인으로 알려져 있던 파타우 나데리는 감옥에서 시를 쓰던 시인이다. 그는 끊임없는 감시와 위협, 모욕 속에서도 담뱃갑 속에 끼워진 은박종이에 시를 썼고 자신을 보러 온 아내에게 그것을 은밀히 건네주었다. 우리의 김남주 시인이 저 80년대에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이집트의 작가 소날라 이브러힘은 1959년 이집트 낫세르 대통령이 좌익 분자 처벌 작전이라는 미명 아래 지식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투옥하던 시기에 7년형의 강제 노역을 언도받기도 했다.

파키스탄의 작가 파미다 리아즈는 계엄정권하에 잡지를 발간하다가 사형을 선고받은 이력의 소유자다.

지구촌의 마지막 하나 남은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 이러한 작가들이 일정한 시기에 한데 모인다는 것은 매우 경이로운 일임에 틀림없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45개국에서 80명에 가까운 작가들이 오는 것은 80여 개의 외국 언론이 한국에 오는 것과 같다. 80여 개의 찬란한 고통과 80여 개의 순결한 영혼이 한국으로 모여드는 것과 같다. 어쩌면 문학올림픽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여기에 한국의 대표적인 시인, 소설가, 그리고 문학평론가 200여 명이 한꺼번에 모여 독자들과 함께 축제의 장을 펼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한국작가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것만으로도 눈부시기 그지없다.

고은, 신경림, 송기숙, 최일남, 김주영, 전상국, 황석영, 한승원, 현기영, 강은교, 박범신, 김훈, 김용택, 황지우, 도종환, 성석제, 은희경, 신경숙, 윤대녕, 김인숙, 문태준, 김선우…….

고통스러운 세상에 뿌리를 둔 문학을 읽고 즐기는 것은 고통을 넘어서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길이기도 하다. 모처럼 마련되는 품격 있는 축제를 이제 마음껏 즐길 일이 남았다. 올해 노벨문학상을 한국의 작가가 수상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할 일은 아니다. 11월에 열리는 아시아·아프리카 문학페스티벌은 우리 한국문학의 힘을 확인하는 축제가 될 것으로 본다.

〈시인〉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정신과 의사 김홍식의 **LA통신**

젊은 엄마들에게

최근 한국을 다녀온 뒤 젊은 엄마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다.

미국 부모들은 백화점에서 아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는데 한 번 'NO'라고 하면 그것은 끝까지 'NO'다. 거절했는데도 조른다고 해서 들어주는 일은 없다. 그러나 왜 'NO'인지 합당한 이유도 설명해주는 것이 미국 부모들 교육 방식이다.

이 때문에 어린아이도 부모가 안된다고 하면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되고 또 그것이 끝인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조르지 않는다.

한국 부모들은 어떤가. 'NO'라고 했어도 조르면 'YES'가 되고 'YES'라고 이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NO'에 대한 훈련을 많이 받은 아이일수록 적응력이 강하게 되는 반면 'YES'를 많이 듣고 자란 아이일수록 불만이 많은 아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했으면 한다.

미국 아이들의 경우 식당에서 무질서하게 뛰는 일이 없다. 뛰어 다니다가는 그 자리에서 부모의 엄중한 꾸중을 듣는다.

남의 집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주인 허락 없이 물건을 만지거나 서랍을 열지 않는다. 냉장고를 열 때도, 화장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도 반드시 주인의 허락을 받도록 교육 받는다.

한국 엄마들은 어떤가. 혹 자신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엄마가 밥을 떠 먹여주는 경우 많지 않은가.

미국 엄마들은 떠먹는 법을 가르칠 뿐, 먹여주지 않는다. 밥상을 차린 뒤에도 "뭐 먹을래?"라고 물어보고 식탁에 올라온 것 말고 다른 것을 먹고 싶다면 가능하다면 요리를 해주는 것이 한국 엄마라면 미국 엄마들은 "뭐 먹을래?"라고 물어보지 않는다. 식탁에 올라온 것을 먹도록 가르치고 그것은 하기 싫은 일이 많은 현실에 적응하는 법을 조금씩 가르치자는 취지다.

스스로 할 수 있는데도 귀엽다며 해주는 것, 남에게 의지하고 독립심을 잃어버리는 가장 해로운 태도다.

미국 아이들과 비교한다면 한국 아이들 버릇, 너무 없다.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실감나지 않는다.

너무 심한 말을 하는 것 아니냐는 독자들도 많을 것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 정상적으로 올곧게 기르기를 바르는 마음에서 하는 말로 받아들여줬으면 한다.

한 뒤에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YES', 'NO'가 무의미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같은 사고로 인해 어른이 된 뒤 법에 대해서도 비슷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다.

한 번은 딸이 중학교를 다닐 때, 밤에 친구들과 같이 나가야 되는데 가도 되겠느냐고 묻길래 별 생각 없이 "여자아이가 밤에 돌아다니면 되겠느냐"고 했다. 며칠이 지난 뒤 딸 기분이 좋지 않아 이유를 물었더니 그 때 중요한 모임이 있었는데 자기만 빠졌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미국에 살면서도 그저 'NO'라고 했지, 중요한 것이라면 더 조르지 않을까 하는 한국식 사고 방식이 남아 있던 탓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 때의 경솔함을 뒤늦게 후회했다.

아이들이 성장한 뒤 알게 된다. 현실은 자신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아마 90% 이상, 'NO'라는 대답을 듣게 되지 않을까.

미국 저력의 근원은 자원봉사…우리도 배워야

최근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 LA의 자원봉사 운영시스템을 보고는 부럽다는 생각을 떨치기 힘들었다.

지체부자유자들을 위한 휴식공간의 경우 누구나 찾아와 무료로 숙식을 제공받을수 있고 시에서 모든 경비와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다.

특히 편한 관공서에서 봉사활동을 한 뒤 점수를 따려는데 급급한 우리나라와 달리 힘든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봉사자들이 많아 관리하기 힘들 정도라는 것이다.

일반 시민들도 한달에 서너번씩 정기적으로 조를 짜서 찾아와 같이 놀아주고 몸도 씻겨주고 같이 식사하며 이들의 손발이 된다고 한다.

현장에서 60대 아주머니는 23년동안 빼놓지 않고 꼬박 그 지체부자유자센터를 찾아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며 다른데 살고 있는 자기의 아들딸도 그 지역에서 비슷한 종류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도 배워야 할 점이 많지 않는가.

▲홍예진·광주시 동구 대인동

기 고

곽 수 연

지역문화 탐방을 다녀와서

7살인 딸 아이와 함께 5년 후면 살게 될 혁신도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가는 걸까?', '안 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이미 토지보상에 들어갔고 11월이면 착공식도 한다니 이제야 말로 제 삶의 터전을 혁신도시 나주로 옮겨야 한다는 실감이 피부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광주에 가서 차근차근 혁신도시를 살펴보자는 마음을 먹고 광주시에서 초청하여 주신 지역문화탐방단에 참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주시장님을 비롯한 광주시청 직원분들의 따뜻한 환대와, 탐방단 버스에 동승하시어 전라도 지역의 문화에 대해 열심히 설명해 주시던 문화해설사분, 주몽촬영지에 관람 오셔서 우리에게 자랑스럽게 열정적으로 이야기해주신 지역 아주머니, 천연염색박물관에서 진지하게 설명해주시던 직원 분. 모두 모두 자신의 고장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듬뿍 담아 얘기하시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혁신도시 현장을 둘러보면서 여기저기 나붙은 현수막들을 보면서 혁신도시 개발을 위해 수 십년 살아 온 정든 집과 땅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셔야 하는 지역의 주민 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정붙여 살아온 고향을 떠나시려니 서운하시기도 하겠지요. 저 역시 정든 서울을 떠날 생각을 하니 가기도 싫고 낯선 곳에서 어떻게 적응해야 하나싶은 걱정도 앞서는데 그 분들의 마음도 마찬가지리라 공감이 갔습니다. 이런 것을 동병상련이라 하는 거겠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분들에게 많은 보상금이 주어지면 토지 조성원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을 테고, 그러면 저희 이전기관이나 직원들의 이주비용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그리고 나주시 등 지자체와, 이전기관, 지역주민들이 지금부터 동병상련의 정을 가지고 합심하시어, 공동혁신도시를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모두 Win-Win 할 수 있는 멋진 곳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자부심을 갖고 우리의 미래를 가꾸어갈 공동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

〈한국전력거래소〉

환자·보호자 이해 못할 의학용어 써야 하나

최근 할아버지가 쓰러져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담당 의사에게 환자 상태를 설명들었다.

의사는 "환자는 뇌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뇌동맥류가 파열돼 생겼지요. 개두술 후 동맥류를 결찰하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 후 뇌부종, 뇌혈관연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짐작만 할 뿐 이해하기 힘들었다.

응급실에서 당황하는 보호자를 앞에 놓고 열심히 설명했지만 제대로 알아듣기에는 너무나 힘들었다.

무슨 말을 한 걸까. 알아봤더니 "뇌를 싸고 있는 막과 뇌 사이에서 출혈이 발생했어요. 원인은 뇌동맥에서 꽈리처럼 부풀어 오른 것이 터졌기 때문이지요. 머리를 열고 꽈리의 목 부위를 클립으로 묶어 더 이상 피가 꽈리로 들어가서 다시 출혈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수술 후에는 뇌가 부을 수 있습니다. 또 뇌동맥이 좁아져 혈액순환이 안 될 수 있죠." 라고 설명이 가능하다고 한다.

편두통 때문에 병원을 찾을 때마다 담당 의사가 하는 말을 이해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면 안될까. 설명해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까. 적절한 쉬운 말을 찾는게 힘드는 걸까.

▲이학섭·광주시 광산구 양산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사 설

전남 노·사·정 '산업평화 결의' 기대 크다

전남지역 노·사·정 대표들이 17일 한 자리에 모여 '산업평화 전남 선포 실천 다짐대회'를 가졌다. 이날 대회에서는 전남도와 광주지방노동청, 한국노총 전남본부, 전남경제인협회 등 지역 노·사·정 대표 300명이 참석해 '기업하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고 한다. 지역 노·사·정 대표들이 갈등과 대립의 관계를 청산하고 상생을 다짐한 것은 전남지역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의미와 파급 효과가 결코 가볍지 않다.

전남이 낙후지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기업유치가 최우선 과제다. 기업이 와야 사람과 돈이 모이기 때문이다. 기업유치에는 산업평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업기반 시설이 빈약한 지역이 노사관계마저 불안하다면 누가 투자하고 공장을 짓겠는가.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등이 노사 평화 선언으로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전남지역은 강성노조 이미지 때문에 국내외 투자가들이 투자를 꺼릴 정도다. 툭하면 벌어지는 파업과 노사 갈등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지역민에게 얼마나 지대한 불안감을 주고 있는지는 긴 말이 필요 없다. 이런 의미에서 노·사·정의 산업평화 실천 결의는 더욱 값지다고 보겠다.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노사가 따로 없다. 우리는 노사평화 선언이 대립과 반목의 노사문화를 새롭게 정립하고 노사간 불신의 고리를 완전히 끊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노사 평화 선언이 전시성이나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노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함은 물론이다.

지역경제의 도약을 위해서는 산업현장의 노사 평화 정착은 시급한 과제다. 노사평화 선언이 전남지역에서 선진 노사문화가 구축되는 기폭제가 되고 광주지역에도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교육부, 로스쿨 총 정원 재검토해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총 정원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대학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교육부는 1천500명으로 시작해 2013년 2천명까지 점차 늘리겠다고 했지만 대학들은 3천명선은 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2009년 3월 개원 예정인 로스쿨이 정원 문제에 걸려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정원 확정의 근거로 매년 1천명 수준인 사법시험 합격자 수, 법조인 1인당 인구, 로스쿨 개원 이후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을 들고 있다. 정원을 2천명으로 하면 연간 신규 법조인 배출 규모가 1천440명이 되며, 2021년까지 법조인 1인당 인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1천482명이 된다는 주장이다.

대학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로스쿨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법개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법조계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개악'이라는 것이다. 대학들은 로스쿨 보이콧과 기존 법대체제 고수, 로스쿨 신청 집단거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원은 로스쿨 대학 수와도 직결된다. 정원을 2천명으로 하면 개별대학 정원이 최대 150명으로 제한돼 있어 인가대학은 15~20개에 불과하게 된다. 로스쿨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전국 47개 대학 중 절반 이상이 탈락하는 것이다. 전남대와 조선대 등 지방대학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로스쿨의 근본취지는 법조인 수를 늘려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저렴하게 받고, 2012년 법률시장의 개방에 대비해 국제거래, 금융, 환경, 노동, 의료분야 등의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취지를 살리려면 정원 1천500~2천명은 적다는 생각이다.

교육부는 총 정원을 재검토하기 바란다. 총 정원을 늘려 법조인이 많아지면 질(質) 저하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시장의 원리에 따라 퇴출과 도태 등으로 해결하면 된다.

無 等 鼓

사랑 나눔 발전소

유가(油價)에 관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크 오일(peak oil)론이다. 피크 오일이란 석유 생산이 최고에 이르는 시점을 말한다. 원유 생산량이 수년 내에 고점에 도달한 후 급감, 세계 경제를 장기 불황의 늪으로 빠뜨릴 수 있다는 피크 오일론이 유가의 고공 행진과 함께 주목 받고 있다.

이 이론은 미국 지질학자 킹 허버트가 1956년에 내놓았다. 피크 오일 이론가인 포스트 카본 연구소 리처드 하인버그 박사는 원유생산은 이미 2005년 정점을 찍었으며 2030년에는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이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단언하고 있다.

피크 오일이론이 지나친 비관론이라는 반박도 거세다. 기술 발달로 새로운 유전개발이 이어질 것이라는 낙관론을 펴는 전문가들이 상당수다.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개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전남의 경우 풍부한 일사량과 저렴한 지가 등으로 태양광 발전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최근에는 수익금 전액을 공익 목적에 사용하는 태양광발전소 설립도 추진되고 있다. 무안군과 환경단체인 (사)에너지 나눔과 평화는 최근 150kw 규모의 '사랑 나눔 발전소 1호'를 설립키로 협약을 체결했다.

사랑 나눔 발전소의 수익금은 무안지역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사용된다. 줄잡아 15년간 5억원이 넘는 수익금이 공익 목적에 사용될 것으로 추산된다.

물론 태양광발전소가 최적의 대안은 아니다. 생산 원가가 기존 에너지에 비해 7배 이상 비싼데다 컴퓨터로 원격 조정이 가능해 고용창출 효과가 거의 없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개발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사랑 나눔 발전소처럼 환경문제도 해결하면서 저소득층도 지원할 수 있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

/김재열 사회2부장 ajkim@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19
〈대표FAX 222-4918〉 〈FAX 227-0118〉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정치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FAX 222-4267〉 조사부 2200-570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업2부 2200-55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